제5강 개봉, 도시를 말하다

1. 개봉 성벽 아래에 묻힌 이야기들

1) 「청명상하도」에 얽힌 이야기

* 중국미술사를 대표하는 그림 중의 하나인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 상하이엑스포에도 디지털 화면으로 등장. 길이 128미터, 폭 6미터.

http://v.youku.com/v_show/id_XMTg3MTUzMjEy.html

(홍교: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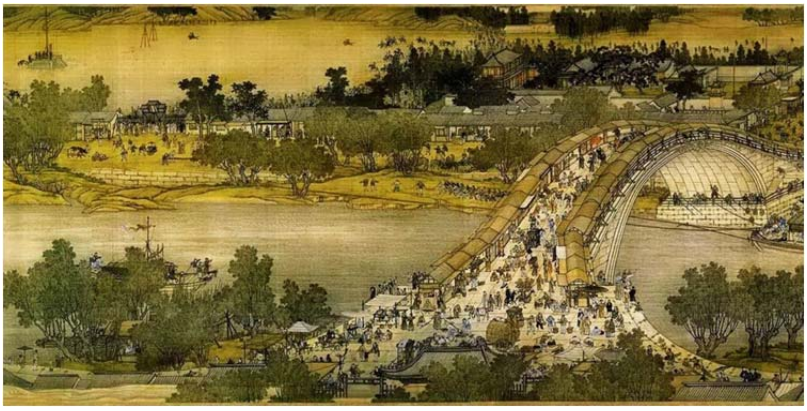
북송 말기 휘종徽宗 시대, 즉 12세기 초 궁정 한림화원翰林畵院의 화가였던 장택단張澤端(원래는 산동성 출신)이 그린 「청명상하도」 진품을 둘러싼 이야기.

명나라 때, 엄숭嚴嵩과 엄세번嚴世蕃 부자와 표구장, 병부시랑인 왕여王忤.「청명상하도」 진품 문제로 엄숭과 엄세번이 왕여를 죽임. 억울한 죽음을 당한 왕여의 아들 왕세정王世貞의 복수- 색정소설色情小說을 좋아했던 엄세번에게 왕세정이 『금병매金瓶梅』에 지어 페이지마다 비상砒霜을 묻혀 엄세번에게 주었음.

*「청명상하도」 진품은 어디에?

-- 현재 전해지고 있는 여러 개의 「청명상하도」 중에서도 진품일 확률이 가장 큰 것은 베이징 고궁박물원에 소장된 것과 타이완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진품이라고 밝히기는 쉽지 않은 형편임.

http://www.npm.gov.tw/exh96/orientation/flash_4/index.html



* 「청명상하도」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는가?

-청명절 날 변경(지금의 하남성 개봉시)의 화려한 모습.

북송의 수도였던 변량汴梁이 지금의 개봉인데, 그 당시 변량은 열린 도시.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오가는 떠들썩한 분위기. 경제가 발달하면서 상인계층이 형성되고, 도시가 활성화되면서 오락적 수요도 증가, 극장인 구란勾欄이라든가 오락장인 와사瓦舍 같은 것들이 발달했음. 운하를 이용한 수운이 발달하면서 개봉의 변하汴河에까지 많은 배들이 들어왔고, 그것은 개봉을 더욱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주었음. 극장에서는 이야기꾼들이 『삼국지』와 『수호지』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러 가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를 정도.- '설창인說唱人'과 '강창소설講唱小說'.

「청명상하도」에는 그런 북송시대 수도 개봉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음. 5미터가 넘는 두루마리 그림의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개봉성 밖 변하 양쪽 기슭에 늘어선 동쪽 교외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묘사됨. 커다란 배가 홍교虹橋를 지날 준비를 하고 있고 다리 위에는 수많은 점포들이 있으며 그 위를 사람들이 오고가고 있음. 등장인물만 500명이 넘고 수레며 가마, 말 등의 탈 것을 비롯해 약방과 술집, 찻집, 비단가게, 보석과 향료 집 등 온갖 가게들이 늘어서 있음. 이곳저곳에 길거리 공연장의 모습도 보임.

송나라와 거란족의 요나라

송 태조 조광윤이 자신을 도운 개국공신들을 무장 해제시켜 고향으로 내려 보낸 후 송나라 사회는 '문치文治'를 중시하게 됨. 그러면서부터 국경이 약해졌고, 송나라는 북방에서 일어난 거란족의 요나라, 서쪽에서 일어난 탕구트족의 서하西夏와 굴욕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해야 했음. 10세기에서 12세기에 이르는 시기, 아시아대륙에서 송나라는 결코 강한 나라가 아니었음. 거란과 서하에 끊임없이 비단과 은을 바치면서 불안한 평화를 유지해야 했던 것. 그 한복판에 위대한 거란의 여성정치인, **소작蕭綽**(953-1009)이 있었음.

거란족은 원래 '말 위의 민족'. 북방 선비족의 후손이라고도 하는 거란족은 용감하기로 이름난 민

족이었고, 궁정의 여성들 역시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이 당연시되었음.

“요나라는 말안장을 집으로 삼기 때문에 후비들도 보통 활쏘기와 말 타기를 잘했다. 그래서 군대가 사냥을 나가면 따라나서지 않는 자가 없었다(遼以鞍馬爲家, 后妃往往長于射御, 軍旅田獵, 未嘗不從).”(『요사遼史』「후비전后妃傳」)

요나라를 세운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의 아내 술률평述律平- ‘팔목을 자른 태후(斷腕太后)’. 술률평의 후손 소작은 경종의 아내. 경종이 병약하여 소작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많았음. 경종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열두 살 나이에 성종으로 즉위하자 29세의 소작은 태후가 되어 본격적으로 정치판을 주도. 전쟁터에도 몸소 출정. 986년, 송나라 태종은 거란과의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에서 송나라 군대는 세 개의 길로 나누어 출정. 그 중 양업楊業의 군대가 있었음.

* **양가장楊家將**이야기-양업(양무적楊無敵)

33세의 황태후 소작이 앞장선 전쟁에서 양업은 포로로 잡혔다가 단식 사흘 만에 죽음. 그리고 양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요의 소작은 양씨 집안사람들에겐 불구대천의 원수가 됨. 이것이 바로 명나라를 풍미했던 소설 **『양가장연의 楊家將演義』**의 시작. 물론 한족의 땅에 전해지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소작이 아니라 양업과 그의 아들 양육량楊六郎. 양씨 집안남자들이 거란족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후, 양업 집안의 여자들이 남자들 대신 나서서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쳤다는 ‘**양문여장楊門女將**’이야기는 비록 허구적인 소설 속의 서사이지만 이후 오랜 세월동안 중국 사람들을 매료시킨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음.

양가장 이야기에 등장하는 소작은 요망하고 잔인하며 나중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요 왕조의 태후로 묘사되지만 그것은 양가장이야기를 만들어낸 한족의 상상 속에서 나온 희망사항일 뿐, 실제 역사 속의 소작은 그 누구보다 걸출한 정치인. 소작이 다스리던 40여 년의 기간 동안 거란은 그 어느 시절보다 강성했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역사는 대부분 한족을 중심으로 한 왕조사. 적어도 10세기부터 13세기의 중국을 볼 때에는 그 중심을 한족의 왕조인 송에만 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랑캐'라고 치부하고 알려하지 않았던 거란과 탕구트의 서하에 초점을 맞춰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무수하게 많은 새로운 진실들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

2. 악비와 포청천

1) '민족영웅' 악비岳飛

"장대한 뜻으로 배고프면 오랑캐의 살을 씹고 壯志饑餐胡虜肉
담소하다가 목마르면 오랑캐의 피를 마시리 笑談渴飮匈奴血
앞장서서 빼앗긴 산하 모두 되찾은 뒤에 待從頭, 收拾舊山河
천자의 궁궐로 돌아가리!朝天闕"

하남성 출신 악비, 개봉 근처 주선진朱仙鎭에서 여진족과의 전투를 시작. 남송 정부가 금나라와의 화친을 준비하며 재상 진회秦檜를 앞세워 금나라와의 타협에 들어갔을 때, 악비는 북방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음. 주화파主和派의 중심인물이었던 진회는 황제를 끼고 있으면서 악비를 불러들여 모반죄로 죽임. 악비가 남송 정부로 소환되기 2년 전인 37세 때 쓴 작품인 「**만강홍滿江紅**」.

"성난 머리카락이 관을 찌르고 怒髮冲冠
난간에 기대서니 스산하게 내리던 비도 그친다. 憑欄處, 瀟瀟雨歇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며, 하늘을 우러러 크게 소리치나니 抬望看, 仰天長嘯
장사의 가슴이 터질 듯하다. 壯懷激烈
30년 공명이 먼지 같은데 三十功名塵與土
전선 팔천 리 길 구름과 달빛만 스칠 뿐이다 八千里路雲和月

잠시라도 한가롭게 기다릴 수 없으니 莫等閑
검은 머리 어느새 희게 변했고, 허허로운 비통함 이루 말할 수 없다 白了少年頭, 空悲切“

민족영웅 악비?

악비에게 본격적으로 ‘민족영웅’이라는 호칭이 붙은 것은 100여 년 쯤 전. 20세기 초부터 최근까지 악비는 중국에서 소위 ‘민족영웅’의 대명사. 서양 제국주의자들의 침탈에 시달리던 청나라 말기, 장태염張太炎을 비롯한 지식인들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
2002년 말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소위 **‘악비논쟁’**- ‘다민족일체론多民族一體論’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중국이라는 지리적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는 56개의 민족이 모두가 하나라는 새로운 ‘중화민족’ 개념을 내세웠다.(“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다”). 역사적으로 여진족, 몽골족, 만주족 등과 싸웠던 한족의 전쟁은 외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민족 내부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전쟁일 뿐이었다는 것. 민족 내부의 갈등 때문에 악비가 여진족과 전쟁을 한 것이라면 화의를 추진했던 진회야말로 충신이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악비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가슴 속에서 숭배의 대상. 하남성 북부 탕음현湯陰縣과 주선진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있는 악비의 사당

‘나의 산하를 돌려다오(還我山河)’
-용감한 장수의 복장을 한 악비의 상 뒤에 있는 현판.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하라(盡忠報國)’
-악비의 어머니가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의 등에 새겨준 문신.

진회를 비롯한 오적의 철로 만든 조상彫像- 진회와 그의 아내 왕씨

2. 포청천

“개봉에 포청천이 있지, 강철 같은 얼굴의 그 사나이 사사로움 없이 충직한 사람과 간특한 인물들을 구별해냈지!”(1990년대 중반, 드라마 주제곡「판관 포청천」)

포청천包靑天은 송나라 때 개봉부開封府의 명판관으로 이름난 검은 얼굴의 사나이. 포증이 개봉의 지부 노릇을 한 것은 나이 59세 때인 1057년부터 시작해서 1년 3개월 밖에 되지 않음. 39세 나이에 비로소 벼슬길에 들어섰음. 진사에 급제한 것은 29세 때였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비로소 관리가 됨.
“뇌물이 통하지 않는 것은 염라대왕과 포공뿐(關節不到, 有閻羅包公)”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것을 직접 담당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개봉에는 포청천이 있다!”라는 말이 나왔음.
63세에 죽을 때 5살 된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음.
“후세에 나의 자손이 벼슬을 하면서 탐관오리 노릇을 하게 되면 절대 고향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죽은 뒤에는 선산에도 묻지 마라.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내 자손이 아니다.”

남송 이후 민간의 소설과 희곡에서 포청천은 가장 인기 있는 주인공 중의 하나. 그가 검은 얼굴로 등장하는 것은 경극京劇의 인물 캐릭터와 관련 있음. 경극에서 검은 색의 얼굴은 강직함을 의미. 이마에 그려진 초승달 모양의 무늬는?

“작두를 대령하라!”
세 개의 작두(鍘), 즉 용머리와 호랑이 머리, 개머리 작두와 관련된 이야기. 용머리 작두로는 황실 사람들, 호랑이머리 작두로는 귀족들, 개머리 작두로는 보통 사람들의 머리를 베었음. 부마 진세미陳世美를 처단한 이야기「찰미안鍘美案」은 그중에서도 백미. 시골에 두고 온 아내 진향련秦香蓮, 진향련을 죽이라고 보낸 한기韓琪, 태후와 공주의 압력 때문에 잠시 머뭇거렸으나 진세미의 악랄함에 분노하여 결국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진세미에게 작두형.